

忠州市 自然部落名 研究

- 命名 有緣性을 中心으로 -

金 眞 植*

- | |
|------------|
| I. 서론 |
| II. 명명 유연성 |
| III. 결론 |

I. 서론

인명이 개개인에 붙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명칭이라면, 지명은 각각의 토지에 붙어 거주지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지명은 원래 토지에 붙여진 명칭만을 의미하나, 연구에 따라서는 인간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는 강·내·바위·못·저수지 등에도 제한없이 사용된다.

이러한 지명은 대체적으로 前部要素와 後部要素로 나뉜다. 이때 전부요소는 후부요소를 수식하면서 지명의 命名 有緣性을 나타내고, 후부요소는 지명의 근간이 되면서 지명의 갈래, 즉 지명의 指示對象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부요소는 일종의 有緣性 標識로, 후부요소는 類型 標識로 볼 수 있다.¹⁾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지명의 명명 유연성이 반드시 전부요소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단일어 지명인 '서흥'은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나눌 수 없다. '서

여기서 명명 유연성이란 이름을 붙일 때 관여하는 인연이나 관련성을 말하는데, 명명 준거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진식, 1998: 38~42). 하나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자체 내의 내적 상황이나 조건이 명명기반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의 외적 상황이나 조건이 명명기반이 되는 경우이다. 전자를 지명 명명의 내부준거로, 후자를 지명 명명의 외부준거로 부를 수 있다. 예컨대, ‘진비알(풍동)’은 비탈이 긴 데서 유래된 비탈 이름이고, 비탈 이름이 이 비탈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 그대로 사용된 예이다. 이때 ‘진’은 지명 명명의 내부준거에 해당한다. 한편, ‘범바우(호암동)’는 바위 모양이 범[虎]을 닮은 데서 유래된 바위 이름으로, 이 바위가 있는 곳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 그대로 사용된 예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외부준거인 동물 ‘범의 모양’이 지명의 명명기반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명의 명명 유연성을 분석해 보면, 후부요소 위에 한 개의 전부요소만이 붙어 단일한 유연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나, 둘 이상의 전부요소가 순차적으로 붙어 둘 이상의 유연성을 드러내는 예도 있다. 이처럼 후부요소에 둘 이상의 전부요소가 붙어 명명 유연성을 나타낼 때, 후부요소에 가까이 위치하는 전부요소일수록 상위 유연성 표지가 되고 멀리 위치하는 전부요소일수록 하위 유연성 표지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명의 명명 유연성을 분석할 때 후부요소에 가까이 위치하는 최상위 유연성 표지인 1단계 전부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웃方井골(봉방동)’은 ‘웃방정+골’로 나뉘고, 전부요소 ‘웃방정’은 다시 1단계 전부요소 ‘방정[네모진 샘]’과 2단계 전부요소는 ‘웃’으로 나뉜다. 이때에는 우선 ‘방정’을 중심으로 유연성을 분석함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홀’은 ‘씨레’의 중세국어형인 ‘서흐레[把]’가 축약된 형태로, 마을이 씨레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를 나눌 수 없는 상태로 명명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忠州市와 中原郡은 1995년에 통합되어 忠州市가 되었다. 본고는 시군 통합 이전 충주시 26개 법정동에 소재하는 189개 자연부락명을 대상으로, 그 명명 유연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²⁾ 이러한 작업은 충주시 지명에 투영된 명명기반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인의 언어생활과 인지태도,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 가운데 인명과 지명이야말로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지과정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忠州는 삼한 때에는 마한의 일부였으나, 나중에는 백제의 판도 확장으로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 장수왕은 63년(475)에 이곳을 점령하여 國原城을 설치하였고, 신라 진흥왕은 11년(550)에 처음으로 이곳을 점령하여 國原小京을 설치하였다. 통일신라 신문왕은 5년(685)에 中原小京으로 개칭하여 9주 5소경의 하나로 삼았다.

고려 태조는 23년(940)에 忠州로 개칭하였고, 성종은 2년(983)에 전국을 12목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곳에 忠州牧을 설치하였다. 현종은 9년(1018)에 4도호부 8목을 두었는데, 충주를 8목 중 하나인 忠州牧으로 삼았다. 그후 고종은 41년(1254)에 몽고군을 물리친 김윤후의 충주산성 전투를 높이 사 國原京으로 승격시켰다.

조선 태조는 4년(1395)에 충청도 감영을 충주에 두고 관찰사를 배치하여 충청도의 중심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다가 선조는 35년(1602)에 충청도 감영을 公州로 이전하였고, 고종은 33년(1896)에 지방관제를 개편하여 전국을 13도로 나눌 때, 충청도를 남북으로 분리하여 충주가 충청북도를 관장하게 하였다. 순종은 3년(1909)에 교통 불편을 이유로 도청을 淸州로 이전하고 충주는 군청 소재지로 삼았다.

2)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189개 자연부락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은 모두 포함시켰다.

광복 후 1956년에 忠州邑은 忠州市로 승격되었고, 漣味·利柳·周德·薪尼·老隱·仰城·可金·金加·東良·山尺·嚴政·蘇台面の 12개면은 中原郡에 편입되었다. 1963년 행정구역 변경시 槐山郡 上莒面이 中原郡으로, 中原郡 利柳面 河文里가 槐山郡으로, 中原郡 薪尼面 廣越里 일부가 陰城郡으로 편입되었다. 1987년 中原郡 漣味面 木伐里가 忠州市로, 堤川郡 寒水面 沙器里·鳴梧里·瑞雲里·浦灘里·咸巖里·好雲里가 中原郡 東良面으로 편입되었고, 1989년 中原郡 利柳面 萬積里의 일부가 忠州市로, 中原郡 上莒面 文江里·土界里가 中原郡 漣味面으로, 中原郡 山尺面 院月里가 堤川郡 白雲面으로 편입되었다.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忠州市와 中原郡이 忠州市로 통합되고, 周德面이 周德邑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忠州市는 1邑 12面 26洞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1邑 12面은 周德邑·漣味面·上莒面·利柳面·薪尼面·老隱面·仰城面·可金面·金加面·東良面·山尺面·嚴政面·蘇台面이고, 26洞은 城內洞·城南洞·城西洞·忠仁洞·忠義洞·校峴洞·龍山洞·芝峴洞·文化洞·虎岩洞·直洞·丹月洞·楓洞·佳洲洞·龍觀洞·龍頭洞·達川洞·鳳方洞·漆琴洞·金陵洞·連水洞·牧杏洞·龍灘洞·宗民洞·安林洞·木伐洞이다(예성문화연구회, 1997: 17~52).

충주의 지리적 위치는 동북으로 上莒面 彌勒里와 堤川市가, 서로는 莘尼面 廣越里와 陰城郡이, 남으로는 上莒面 彌勒里와 槐山郡·慶尙北道가 잇대어 있고, 북으로는 仰城面 丹巖里와 京畿·江原道가 잇대어 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동북부 지역에 속한다. 동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의 줄기인 鷄鳴山·南山·大林山·月巖山이, 남쪽으로는 國望山이, 북쪽으로는 天登山이 둘러 싸고 있어 산간 분지를 형성하며 南漢江·達川·堯道川이 이 지역을 지나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다. 충주가 갖는 이러한 위치상의 특징으로 선사 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었고, 삼국시대에는 경제적 이점과 군사적 중요성, 교통로의 편의성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심했던 지역이다(예성문화연구회, 1997: 23~24).



[충주 시내 지도]

法定洞	自然部落
城內洞	城안[城內], 東門거리[東部]
城南洞	南門거리[南部]
城西洞	西門거리[西部], 회나무거리
忠仁洞	나무塵거리
忠義洞	
校峴洞	北門거리[北部], 古北門거리, 夜門거리, 鄉校말[校洞], 대가미, 웃대가미, 아랫대가미, 섬말[島村], 새말[新村], 시냇골, 풀무고개[治峴洞], 여수월[여우골], 珠峰[珠峴], 황새모랭이
龍山洞	光부처거리, 말무덤자리, 嶺南村, 웃南部
芝峴洞	도둑골, 水峴, 新村
文化洞	社稷山, 城터지기, 송장골, 숲거리, 연못등치
虎岩洞	貫珠골[貫珠洞], 작은貫珠골, 大堤[水淸골], 도둑골, 도장골 [도장洞], 뜰북골, 鳴鶴골, 못밑, 범바우[元虎岩],烽火골, 四川개, 山陽재, 숲풀말, 웃서낭댕이, 中間말
直 洞	곧은골[直洞·直谷], 구루미[九雲里], 구영말, 밭티, 山골재, 새말, 아랫말, 이레갈이, 자라바우[鼈岩], 中말, 塔堡
丹月洞	건넌말, 果樹고개, 丹月[驛말], 북바우[明堂바우], 모새내 [沙川], 上丹, 下丹, 새터[新堡], 세집담, 松亭, 新村, 아랫거리, 웃거리, 양짓말, 음짓말, 柳酒幕, 지리고개
楓 洞	陵골[陵谷], 丹楓골[楓洞], 上楓, 中楓, 下楓, 東幕골, 下東幕, 진비알, 한가실
佳洲洞	가주, 큰가주, 작은가주, 골고개, 생이, 아랫말
龍觀洞	두무沼[斗潭], 벌미, 上龍觀, 西湖亭, 龍돈
龍頭洞	못둑거리, 벌터, 龍머리[龍頭], 아래龍머리[아래龍頭, 下龍頭], 위龍머리[위龍頭, 上龍頭]
達川洞	근평, 達내[達川·德川·達江], 물개達내, 벌터, 새덧말, 松林, 元達川, 흙桶거리
鳳方洞	섬말[島村], 方井골[方井洞], 아랫方井골[下方], 웃方井골 [上方], 鳳溪, 숲거리
漆琴洞	琴臺, 밭가운데, 새말[新村], 섬들, 아랫모탱이, 웃모탱이, 웃갓[漆枝]

法定洞	自然部落
金陵洞	金堤, 陵바우[陵岩], 뒷거리[後거리], 쇠지울, 응골, 中말, 中桶말
連水洞	곳집거리, 공말, 金고리[金谷], 東守[東守마루], 東便, 西便, 방자고개, 배나무실, 三거리, 세집담, 아랫말, 양짓말, 장들말랭이, 助山밖에
牧杏洞	難民村[瑞興], 牧水울[牧水], 彌勒이, 세모골, 銀杏亭이[杏亭]
龍灘洞	가리어울[岐灘], 둔지벌[둔지洞], 배깎말[外村], 벌에, 사례실, 神담벌, 절골[寺谷], 아랫절골, 陽창이[陽村], 참나무亭, 龍골[龍谷, 龍洞], 碓골[臼洞], 甕器店
宗民洞	덧골[基洞], 밍개, 민마루[民宗], 범洞[봉골], 아랫말, 옷말, 종댕이[宗堂], 아랫종댕이[下宗], 옷종댕이[上宗], 院터[院垜]
安林洞	공말, 마당참, 번던, 藥幕, 沙덕이, 섬말[島村], 안말, 御林, 아랫말, 옷말, 양달말, 음달말, 잔치참, 酒幕거리, 황새머리
木伐洞	곱도실, 나무벌[남벌·木벌], 밍개, 요강골, 院터[院垜], 진의실[진의谷]
26	189

II. 명명 유연성

2.1. 내부준거

2.1.1. 길이

(1)지리고개(단월동), (2)진비알(풍동)

(1)은 ‘지리+고개’로 분석된다. ‘지리’ 또는 ‘지릿’은 ‘지리골’·‘지리내’·‘지리논’·‘지리들’·‘지리실’·‘지리재’나 ‘지릿개’·‘지릿골’·‘지릿논’·‘지릿들’·‘지릿재’·‘지릿터’ 등과 같이 매우 생산적인 전부요소이다. 그리고 이들 지명은 대부분 지루할 정도로 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지루하다’의 유의어인 ‘支離하다’와 관련된 듯하다. (1)은 원래 고개 이름인데, 이 고개 밑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 전용된 예이다.

(2)는 ‘진+비알’로 분석된다. ‘진’은 ‘길다’의 관형사형 ‘긴’의 구개음화형이고, ‘비알’은 ‘비탈’의 충청방언형이다. (2) 또한 원래 비탈 이름인데, 이 비탈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 전용된 예이다.

2.1.2. 높이

(1)達내(達川·達江·德川·達江: 달천동), (2)元達川(달천동), (3)물개達내(달천동), (4)丹月(驛말, 단월동), (5)上丹(단월동), (6)下丹(단월동)

(1)은 ‘達+내’로 분석된다. 고구려 지명에서 ‘達’[*tar]·‘德’[*tak]은 ‘高’나 ‘山’과 관련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達’·‘德’계 지명도 신라·백제 지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고구려 어휘로 간주되어 왔다.

達川或名德川或名達川在州西八里<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4 忠州牧>, 高阜曰德<北塞記略 孔州風土記>

여기서 ‘德=高=達’의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高烽縣本高句麗達乙省縣, 高城郡本高句麗達忽, 兔山郡本高句麗烏斯含達縣, 松山縣本高句麗夫斯達縣, 蒜山縣本高句麗買尸達縣, 菁山縣本高句麗加支

達縣, 土山縣本高句麗息達, 蘭山縣本高句麗昔達縣<三國史記 卷 35>, 功木達一云熊閃山<三國史記 卷 37>

다시 ‘高=達=山’의 대응관계가 성립되고, 결국 ‘德=高=達=山’의 대응관계로 요약된다. (1)에서 ‘達내’가 ‘德川’으로도 불림이 이러한 대응관계를 입증한다. ‘達’, ‘德’이 [高]의 뜻이라면 ‘達내’는 충주시처럼 지형이 높고, 이 높은 지형에 흐르는 내이기에 붙은 이름으로 추정된다.³⁾

(2)와 (3)도 ‘達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지명이다. 특히 (3)은 ‘達내’ 물가에 형성된 마을이기에 붙은 지명이다.

(4)는 ‘丹+月’로 분석된다. ‘丹’은 고구려 지명에서 ‘谷’과 대응하는 ‘旦’·‘呑’·‘頓’[*tan·*tuan]에 소급하는 바, 고대일본어 [tani(谷)]와 비교된다. 널리 아는 바와 같이, 이 ‘呑’계 지명은 신라·백제 지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고구려 어휘로 간주되어 왔다.

水谷城縣一云買旦忽, 於支呑一云翼谷, 十谷縣一云德頓忽, ■■■ 縣一云首乙呑<三國史記 卷 37>

더욱이 15세기 초에 ‘村呑’(『朝鮮館譯語』)이 마지막으로 발견되면서, 정음 문헌은 한결같이 신라어계 ‘ㅁ술’을 보여 준다.

충북 지명에서도 청원군 이북 -특히 고구려 고토였던 충주시·음성군·괴산군-에서만 발견되며 보은·옥천·영동군에서는 일례도 발견되지 않는 바(강병륜, 1997: 98), 충북 지명만 놓고 보면 청원

3) 지명에 보이는 ‘덕’을 다르게 풀 수도 있다. ‘덕’을 한자어 ‘德[크다]’으로 볼 수도 있고, ‘터[基]’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마침 ‘덕촌’에 대해 ‘큰 마을’이 함께 쓰인다거나, ‘덕동’에 대해 ‘터골·텃골·턱골’이 함께 쓰이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청주시·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284). 그렇다면 ‘達내’ 또는 ‘德川’은 ‘큰 내’나 ‘큰 고을에 흐르는 내’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군이 이 ‘呑’계 지명의 최남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남 동부지역의 소지명에서도 이 ‘단’계 지명이 많이 발견되고(백두현, 1988: 47), 울산 지역에서도 ‘각단’의 모습으로 다수 발견되고 있어(고정의, 1995: 5), 이것이 과연 고구려 어휘인지는 재고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⁴⁾ ‘月’은 ‘달’에 대한 訓借表記이니, 전술한 [高]와 관련된다. 따라서 ‘丹月’은 ‘단달’로 읽히며, ‘높은 고을[高谷]’로 해석될 수 있다.

(5)와 (6)은 ‘단달[丹月]’이 다시 나뉜 마을로, ‘단달’에 어원을 둔 지명이다.

2.1.3. 모양

(1)가리여울(岐灘: 용탄동), (2)곧은골(直洞·直谷: 직동), (3)민마루(民宗: 종민동), (4)밍개(목별동·종민동), (5)세모골(목행동), (6)응골(금릉동)

(1)은 ‘가리+여울’로 분석된다. ‘가리’는 ‘가르[分岐]’와 관련된다. ‘가르’·‘가를’은 ‘갈래’의 고어이다.

가르마다 七寶 비치오 <月 8: 13>, 세 가르 돌드리 잇느니 (三叉石橋) <朴초上 68>, 프리 몰리 이서 가르를 모도듯 하니 <능 1: 16>, 네 가를로 滅을 비나(四派 示滅) <능 9: 120>

이 ‘가르’는 일찍부터 지명에 나타나니, 『三國史記』卷 34의 고대 지명 ‘加羅’·‘嘉洛’·‘加耶(伽倻)’·‘加利’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加’·‘嘉’·‘伽’ 등은 모두 ‘가’에 대한 音借表記이며, ‘羅’·‘洛’·‘耶(倻)’·‘利’ 또한 ‘르’에 대한 音借表記로 이해되어 [分岐]로 해석될 수 있다.⁵⁾

4)울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각단’은 ‘갯+단 > 갓단 > 각단’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정의, 1995: 5).

5)加耶(伽倻)에서 ‘耶(倻)’의 음은 ‘야’나 ‘랴’로 통용되었으니, 『三國史記』

지명에서 이 ‘가랴’는 고유어로는 ‘갈’·‘가래’·‘가락’·‘가리’ 등으로, 한자로는 ‘加來’·‘葛’·‘佳樂’ 등으로 대응된다. 이 중 ‘葛’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으니, 그 유래담을 면밀히 분석하여 [葛]을 뜻하는지 [分岐]를 뜻하는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상기 지명 ‘가리여울’은 용골 서북쪽에 있는 여울로, 경사가 심하며 여울 가운데 바위가 있어 물이 두 갈래로 흐른다. 그리고 이곳에 형성된 마을에 여울 이름을 그대로 쓴 예이다.

(2)는 ‘곧은+골’로 분석된다. ‘곧은’은 ‘곧다’의 관형사형으로, 마을 모양이 곧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골’은 지명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후부요소로, 그 기원은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다(이돈주, 1971: 361). 하나는 고구려어 ‘忽’과의 관련이다. 이 ‘忽’은 『三國史記』에 48례가 보이는데, 그 중 1례만이 백제 지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고구려 지명이다.⁶⁾ ‘忽’은 中國 中古音으로는 [xuət]이요 東音으로는 [ho]이니, 어두음으로는 [*x] 또는 [*h]를 재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忽’은 ‘溝漚者句麗名城也’<三國志魏志東夷傳>에서 ‘溝漚’[*kürü]로도 나타나고, ‘獐項口縣一云古斯也忽次, 楊口郡一云要隱忽次, 穴口縣一云甲比古次, 泉井口縣一云於乙買串’<三國史記 卷 37>에서 [口]를 의미하는 고구려어가 ‘忽次’[*xurc] 또는 ‘古次’·‘串’[*kuc]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구려어에서 어두의 [*x]와 [*k]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어말음은 [*r] (또는 [*l])로 재구하는 것이 타당한 듯이 생각된다. 위에 인용한 ‘溝漚’도 그렇거니와, ‘泉井郡一云於乙買’<三國史記 卷 37>에서의 ‘於乙[泉]’과 ‘泉蓋蘇文’의 이름을 ‘伊犁柯須彌’[iri kasumi]<日本書紀 卷 24>라 표기한 데서 볼 수 있는 ‘泉’에 대한 [iri]의 일치도

卷 34의 다음 예가 이를 암시한다.

金官國: 金官伽耶, 伽落國, 駕洛國, 阿尸良國: 阿羅加耶, 阿耶加耶

6) ‘寶城郡本百濟伏忽郡’<三國史記 卷 36> 1례만이 백제 지명이다.

이러한 재구의 정당성을 암시하고 있다(이기문, 1972: 33). 따라서 우리는 ‘忽’을 [*xol]·[*hol]·[*kol]로 재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재구된 고구려어 ‘忽’은 신라어 ‘火’·‘伐’이나 백제어 ‘夫里’와 동계어로, 만주어 [holo[山·谷]]와 대응된다고 보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이철수, 1983b: 45~46, 강병륜, 1997: 86, 조항범, 1994: 74). 그리고 [holo]에서 [*xol]·[*hol]·[*kol]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 또한 [山·谷]에서 [城·洞]으로 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골’의 예는 ‘谷’과 ‘洞’이 대응되고 있어 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골’계 지명은 ‘忽’에서 출발한 ‘골’이 15세기에는 이미 지명의 후부요소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陰城縣本高句麗仍忽縣, 白城郡本高句麗奈兮忽, 赤城縣本高句麗沙伏忽, 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 高城郡本高句麗達忽, 野城郡本高句麗也尸忽郡<三國史記 卷 35>, 峰城縣一云述爾忽縣, 遼城郡一云加阿忽, 母城郡一云也次忽, 淺城縣一云比烈忽, 漢城郡一云漢忽<三國史記 卷 37>, 加莫洞 가막골<용 1: 39>, 淳甕洞 지벽골<용 1: 49>, 北泉洞 뒷삼골<용 2: 32>, 防薺洞 마근담골<용 5: 27>, 韃靼洞 다대골<용 5: 33>, 答相谷 답상골<용 5: 34>, 舍音洞 마룻골<용 5: 34>, 蛇洞 비암골<용 1: 43>, 兎兒洞 투씨골<용 7: 53>, 所磨洞 설맷골<용 9: 28>, 楸洞 마래울<용 10: 19>, 뿔고래 수머겨샤<석 6: 4>, 고리 마득흔 구루미(滿谷雲)<杜초 8: 51>, 즘른 바회와 萬골왜(萬壑)<南明下 27>, 골 곡(谷)<字會上 3>, 골 동(洞) 골 곡(谷)<類會上 5>

그러나 『龍飛御天歌』를 포함한 후기중세국어에 보이는 모든 ‘골’이 [山·谷]을 뜻하는 ‘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는 신라어 *마불[郡·村]에 소급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고대일본어에는 [köföri[郡]]가 보이는데, 이는 신라어 *마불[郡]의 차용임에 틀림없다. 문헌 예로는 ‘栗村 조크불<용 2: 22>’이나 ‘스마불 軍馬를 이길씨(克彼鄉兵)<용 5: 31>’에 보이는

‘조크불·스크불’이 最古形이고, 이는 ‘크불>크올>고올>골’의 과정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15세기 이래 사용되어 온 ‘골’계 지명은 고구려어 ‘忽’에서 비롯된 것과, 신라어 *크불에서 비롯된 것이 섞여 있을 것인 바, 이들을 대상으로 그 기원을 정확히 구분해 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골’계 지명은 ‘굴’·‘꼴’·‘꼴’·‘골짜’·‘골짜기’·‘굴명’·‘울’·‘월’·‘고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3)은 ‘민+마루’로 분석된다. ‘민-’은 ‘민실’·‘민골’·‘민내’·‘민들’·‘민등’ 등과 같이 전부요소로 많이 사용된다. 이들 대부분은 밋밋한 지형에 붙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때, [우툴두두틀 하던 것이 평평하게 됨]을 뜻하는 접두사 ‘민-’과 관련되는 듯하다. ‘마루’는 [등성이가 진 지붕이나 산 등의 꼭대기(宗)]를 뜻한다. 따라서 ‘민마루’는 [밋밋하게 등성이가 진 산 등의 꼭대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마루’는 일찍부터 지명에 사용되어 왔으니, [高]를 뜻하는 백제어 ‘毛良[*murāŋ]이나 후기중세국어 ‘마르[宗]’와 관련된다.

高敞縣本百濟毛良夫里縣<三國史記 卷 36>, 곳마르준(準)<字會上 26>, 등마르척(脊)<字會上 27·類合下 51>, 마르 중(宗) <字會上 32>·<類合上 23·下 59>

지명에서 ‘마루’는 이형태 ‘말양’·‘말랑’·‘말랑이’·‘날망’으로도 나타나는데, [평지보다 약간 높으면서 평평한 곳]을 가리킨다.⁷⁾ 한편 ‘마루’는 후부요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요소로도 자주 사용된다. 물론 이때에도 [약간 높고 평평한]이란 의미는 그대

7)지명에는 ‘말림’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마루’와는 관계없는 지명이다. 이는 ‘말림갯’의 준말로,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땅이나 산]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남작말림: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골], 불탄말림: 청원군 문의면 가호리 [골], 큰말림: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골]

로 들어 있으며, ‘말’·‘마리’ 등의 이형태도 나타난다. ‘말’은 한자 ‘馬’·‘斗’로 訓借表記되면서 [말(馬·斗)] 모양과 관련시키는 예가 있으나, 이들은 ‘ㅁㄹ’에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리’ 또한 ‘머리[頭]’의 이형태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마리’가 붙어 있는 지명들은 대체로 지대가 말등·마루와 같이 높다든지, 마루처럼 계단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유래담이 관련되어 있어, ‘ㅁㄹ’에 소급된다 말할 수 있다.

(4)는 ‘밍+개’로 분석된다. ‘밍-’은 접두사 ‘민-’의 변형이다. ‘민-’이 ‘개’의 ‘ㄱ’의 영향으로 연구개음화하여 ‘밍-’으로 변한 것이다. ‘개’는 『三國史記』나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지명에 사용된 것 같다.

今浦縣本骨浦縣，東津縣本栗浦縣，蘭浦縣本內浦縣，河邑縣本浦村縣<三國史記 卷 34>，鶴浦縣本高句麗鶴浦縣，金浦縣本高句麗黔浦縣<三國史記 卷 35>，赤鳥縣本百濟所比浦縣景德王改名今德津縣<三國史記 卷 36>，鶴浦縣一云古衣浦<三國史記 卷 37>，合浦 합개<용 1: 49>，金谷浦 김곡개<용 2: 22>，助邑浦 조읍개<용 2: 22>，蛇浦 비암개<용 3: 13>

‘개’는 [강물이나 냇물이 드나드는 곳(浦)]을 뜻한다. 본래는 개이름에 붙는 요소지만 마을·골·들·산에 개가 있는 경우 이들 이름에 전용되고 있다. 따라서 ‘밍개’는 [밋밋하게 형성된 냇물이 드나드는 곳]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5)는 ‘세모+골’로 분석된다. 마을 모양이 세모꼴이기에 붙은 지명이다.

(6)은 ‘응+골’로 분석된다. ‘응’은 ‘은’의 변형으로 ‘골’의 ‘ㄱ’에 의해 연구개음화된 결과이다. ‘은골’은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지명으로, ‘銀谷’ 또는 ‘隱谷’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銀을 채취하던 곳이 아니라면, 지형이 골짜기에 싸여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곳이라면 ‘은’은 고유어 ‘숨은’의 생략형으로도 볼 수 있고 한자어 ‘隱’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단

어 형성원리로 볼 때 전자가 보다 자연스럽다.

2.1.4. 성질

(1)새말(직동, 新村: 교현동·칠금동), (2)새터(新垆: 단월동), (3)새덧말(달천동), (4)新村(지현동·단월동), (5)양깃말(단월동·연수동), (6)음깃말(단월동), (7)양달말(안림동), (8)음달말(안림동), (9)陽창이(陽村: 용탄동), (10)山陽재(호암동), (11)생이(가주동)

(1)~(3)은 각각 ‘새+말’, ‘새+터’, ‘새+터+말’로 분석된다. 여기서 ‘새’는 관형사로 [新]의 뜻이다. (1)의 ‘말’은 지명에서 매우 생산적인 후부요소인데, 후기중세국어의 ‘ㅁ술[村·里]’에 소급한다.

나모지는 놀애는 저기 ㅁ술호로 나오놋다(樵歌稍出村)<杜초 7: 39>, ㅁ술흔 거출오 너트니(聚落荒淺)<法화 2: 188>, ㅁ술 리(里) ㅁ술 촌(村)<字會中 8>

그런데 오늘날 후부요소로 붙는 ‘말’은 그 기원을 따져 보면 약간 다른 과정을 통해 발달해 온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ㅁ술>ㅁ을>말’의 과정을 통해 발달해 온 어형이요, 다른 하나는 ‘ㅁ술>ㅁ을>마을>말’의 과정을 통해 발달해 온 어형이다(강병륜, 1997: 107~108). 즉 ‘ㅁ술>ㅁ을’까지는 그 변화가 같이 진행되다가 하나는 ‘말’로 축약된 후 이것이 다시 ‘말’로 정착되어 지명의 후부요소가 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ㅁ을’로 변한 후 다시 [村·里]를 뜻하는 일반명사 ‘마을’로 정착되었다가 ‘마을’이 ‘말’로 축약되어 또 하나의 후부요소로 첨가된 것이다. 따라서 현용 지명의 후부요소 ‘말’은 ‘ㅁ술’로부터 독자적으로 변해 온 ‘말’과 일반명사 ‘마을’에서 축약된 ‘말’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3)의 ‘터’는 고구려 지명 ‘隄’와 관련되는 ‘吐’·‘刀’[*tʰu]로, 후기중세국어에서는 ‘터[基]’와 대응된다.

漆隄縣本漆吐縣, 大城郡本仇刀城境內<三國史記 卷 34>, 奈隄郡本高句麗奈吐郡, 隄上縣本高句麗吐上縣, 長隄郡本高句麗主夫吐郡, 棟(一作棟)隄縣本高句麗東吐縣<三國史記 卷 35>, 奈吐郡一云大提<三國史記 卷 37>

지명에서 ‘터’는 매우 생산적인 후부요소이다. 한자로는 ‘垆’로 訓借表記되고 있으며, ‘터’외에 ‘태·테·퇴·때·턱’도 보인다. 의미 영역도 터 이름외에 마을·들·골·산 이름에 전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을 이름이 가장 많다.

(4)는 ‘새말’에 대한 한자표기이고, (5)~(8)은 각각 ‘양지+말’, ‘음지+말’, ‘양달+말’, ‘음달+말’로 분석된다. 특히 (7)~(8)의 ‘달’은 기술한 고구려어 ‘達’에 어원을 둔다. ‘達’은 ‘德’과 같이 [高·山]을 뜻하던 말인데, ‘陽달[별이 잘 드는 곳]·陰달(음달)[별이 잘 들지 않는 곳]’의 경우에는 [高·山]>[地]으로 의미가 변화된 듯하다.

(9)는 ‘양+창+이’로 분석된다. 이는 지역에 따라 ‘양창이’·‘양창이’로도 나타나는데, 양지에 형성된 마을에 주로 붙는다. 따라서 ‘陽淸’에 접미사 ‘-이’를 붙여 안정된 어형을 이룬 지명으로 생각된다.

(10)은 ‘山陽+재’로 분석된다. ‘山陽’은 [산의 양지]로, ‘산양골’·‘산양동’·‘산양리’·‘산양말’·‘산양모랭이’ 등에 붙는다. 따라서 ‘山陽재’는 [산의 양지에 있는 고개]로 해석되고, 이런 곳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 전용된 예이다.

(11)은 ‘斜陽+이’에서 변형된 예이다. ‘생이’는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지명으로, 대부분 ‘사양이’, ‘사양리’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斜陽’은 [해질 무렵에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을 뜻하고, ‘-이’는 어형을 안정시키는 접미사로 볼 수 있다. 이런 마을은 실제로 산 밑 양지쪽에 자리잡아 해가 잘 비치는 탓에 따뜻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2.1.5. 수

(1)三거리(연수동), (2)四川개(호암동)

(1)~(2)는 각각 ‘三+거리’, ‘四+川+개’로 분석된다. (1)에서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변화한 길거리(街)]를 뜻한다. 그런데 이 ‘거리’가 쓰인 지명은 본래 의미영역인 거리 이름보다는 마을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어떤 사물·건물 주변 거리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거리’도 거리 이름에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이다.

(2)는 현 남산초등학교 서편의 하천 부근의 마을로, 옛날에는 역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물길이 네 갈래로 발달하여 붙은 지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미가 비슷한 ‘川’과 ‘개’가 중복된 유의중복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6. 위치

(1)가주(가주동), (2)큰가주(가주동), (3)작은가주(가주동), (4)건년말(단월동), (5)구영말(직동), (6)공말(연수동·안림동), (7)배깎말(外村: 용탄동), (8)아랫말(직동·가주동·연수동·종민동·안림동), (9)웃말(종민동·안림동), (10)안말(안림동), (11)中間말(호암동), (12)中말(직동·금릉동), (13)東便(연수동), (14)西便(연수동), (15)뒷거리(後거리: 금릉동), (16)아랫거리(단월동), (17)웃거리(단월동), (18)아랫모텡이(칠금동), (19)웃모텡이(칠금동), (20)한가실(풍동)

(1)은 중세국어 ‘갸(邊)’과 관련된다. ‘갸’은 [가장자리]를 뜻한다.

더브러 恒河水사 ㄹ새 가 <月 23: 90>, 네 갸 버텡길헤 <月 7: 64>
제불사 ㄹ새 조홀 불곤 므슴(諸佛勝淨明心) <牧 20>, 더 ㄹ새 건너리라 <龜上 42>

지명에서 이 ‘갯’은 마을·들·도랑·고개·골짜기 등에 다양하게 붙는데, 그 위치가 중앙에서 벗어난 가장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주로 전부요소로 많이 붙지만, 후부요소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갯’ 외에도 ‘가’·‘가자’·‘가장’·‘가주’·‘가재’ 등이 나타나는데, 특히 ‘가재’로 나타나는 경우 절지동물 [가재]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충주시 가주동은 본래 충주군의 남쪽 가장자리인 南邊面에 위치한 마을이었음이 ‘가주’를 ‘갯’과 관련시킴에 단서를 제공한다. 한자표기시 ‘邊’으로 訓借標記되기도 하고, ‘佳’·‘佳芝’·‘佳佐’·‘佳洲’로 音借表記되기도 한다. (2)~(3)은 각각 ‘가주’에서 나뉜 마을 이름이다.

(4)는 ‘건넌+말’로 분석된다. ‘건넌’은 ‘건너’에 ‘ㄴ’이 첨가된 형태로, ‘건너’·‘건네’·‘건넌’·‘건넛’·‘건넱’·‘건느’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전부요소이다. ‘건넌말’은 하단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5)~(6)은 각각 ‘구영+말’, ‘공+말’로 분석된다. ‘구영말’은 발터에 딸린 마을로, 지대가 낮으면서 구석진 곳에 있다. ‘구영’은 ‘구석’을 뜻하는 중세국어 ‘구석’에서 변한 말이다. ‘구석’에서 ‘ㅅ’이 탈락하여 ‘구역’이 되고, ‘구역’의 ‘ㄱ’이 ‘말’의 ‘ㅁ’ 앞에서 비음화하여 ‘구영’이 된 것이다. 지명에 따라서는 ‘구영’이 축약되어 ‘꿩’·‘공’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 즉 ‘구석>구역>구영>꿩·공’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말’은 ‘마을’을 뜻한다. 따라서 ‘구영말’·‘꿩말’·‘공말’은 [구석에 있는 마을]로 풀이된다. 예에서 ‘공말’도 연수동 동수 마을 동편의 좁은 골짜기와 안림동 계명산 아래 좁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때, ‘꿩말’이 변한 이름으로 보인다.

(7)~(12)은 각각 바깥, 아래, 위, 안, 중간, 중앙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고, (13)~(14)는 각각 동, 서편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다.

(15)~(17)는 각각 뒤, 아래, 위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고, (18)~(19) 또한 각각 아래, 위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다.

(20)은 ‘한+가+실’로 분석된다. ‘한’은 [많다]·[크다]를 뜻하는 고어 ‘하다’의 관형사형으로, 지명에서 고개·들·우물·마을·나루 등에 폭

넓게 연결되는 전부요소이다.

節略이 너무 하 <六祖序 7>, 祥瑞 하거늘 <曲 17>

고지 하거나라(花多) <杜초 15: 31>, 활쏘리 하건마론 <용 45>

그리고 ‘가’는 (1)에서 설명한 중세국어 ‘갓(邊)’과 관련된다. 마지막
막으로 ‘실’은 본래 [谷]을 뜻하는 말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지명
에 사용되어 왔다.

得鳥一云谷鳥<三國遺事 卷 2>, 絲浦今蔚州谷浦也<三國遺事 卷 3>, 國音
谷亦謂之室因俗而名亦從簡也<澤堂集 卷 9 斗室記>

여기서 ‘得’은 ‘谷’에 대응하고, 다시 ‘谷’은 ‘絲’와 대응되는 바,
‘絲’의 훈은 ‘실’이다. 따라서 ‘得’과 ‘谷’의 훈도 ‘실’이다. 이처럼
‘실’은 ‘골’과 유의어로 [谷]을 지칭하는데, 골 이름 중에는 ‘실’과
‘골’의 유의중복형도 더러 발견된다. 아마도 후대로 오면서 ‘실’의
의미가 ‘골’보다는 불분명하게 되자, ‘골’을 덧붙여 [谷]의 뜻을 분
명하게 밝힌 예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복의 다른 지명에서는 더러
‘일’로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실’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
를 겪어 ‘실’이 되고, 이것이 후기중세국어 이후 ㅅ:이 소실로 ‘일’
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⁸⁾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한가실’은 [비교
적 큰,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을] 정도로 풀이될 수 있다.

2.1.7. 크기

(1)다가미(교현동), (2)웃다가미(교현동), (3)아랫다가미(교현동), (4)이레

8)그러나 유성음 사이라 해서 모든 경우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
로 굳어진 경우도 있음을 볼 때, [二三]이 ‘두서’와 ‘두셔’로 보이듯이 어
느 한 때 양형이 공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이(적동)

(1)은 ‘大+가미’로 분석된다. 지명에 따라서는 ‘가미기’란 지명을 ‘가마기’로도 부르면서, ‘가미[가마]’를 [그릇 가마가 있던 곳]·[가마솥을 만들었던 곳]·[가마솥처럼 생긴 골짜기], [동물의 개미나 곰] 등과 관련시킨 예가 많다. 그러나 ‘가미[가마]’는 ‘검’에서 변한 말이다. 이 ‘검’은 上代의 신앙·정신면과 관련되는 바, [神]의 뜻을 갖는다. 그리고 이 ‘검’은 한자로 표기될 때, 音借表記로는 ‘金’·‘錦’·‘琴’·‘甘’·‘檢’ 등이 이용되고, 訓借表記로는 ‘釜’·‘玄’·‘丁’·‘黑’·‘炭’ 등이 이용된다. 또한 이런 ‘검’ 계 지명은 ‘加莫洞 가막골<龍飛御天歌 1: 39>’에서와 같이 일찍이 『龍飛御天歌』에도 보인다. 현대지명에 나타나는 ‘검’ 계 지명은, 가장 흔한 모습이 ‘검>감’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가마’인데, 때로는 ‘감’·‘검’·‘금’·‘가마’·‘가매’·‘고마’·‘가미’·‘가무’·‘개마’·‘개매’ 등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들은 [神]이나, 여기서 발전한 ‘크다[大]’를 뜻하게 된다. 이 ‘검’ 계 지명은 일본 지명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바, ‘가미쿠라’·‘가미’·‘가미고마’·‘가모이’·‘가무이’·‘고마’·‘구마모토’ 등이 그 예이다. 이상으로 볼 때, ‘다가미’는 [크다]를 뜻하는 한자어 ‘大’와 고유어 ‘가미’의 유의중복형으로 이해되어 [큰 마을]로 해석될 수 있고, (2)~(3)은 ‘다가미’에서 나뉜 마을에 붙은 이름으로 볼 수 있다.

(4)는 ‘이레+같이’로 분석된다. 절골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마을로, 이레 동안 같아야 할 만큼 큰 밭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2.2. 외부준거

2.2.1. 기능

도장골(도장洞: 호암동)

‘도장골’은 ‘도장+골’로 분석된다. 여기서 ‘도장’은 ‘도장방’을 뜻한다. ‘도장방’이란 ‘구방(閨房)’과 같은 말로,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따라서 ‘도장골’은 [도장방처럼 아늑한 골짜기]로 풀이할 수 있다. 산으로 둘러 싸인 골짜기가 안방처럼 아늑한 느낌을 줄 때, 이런 이름이 많이 붙는다.

2.2.2. 높이

구루미(九雲里: 직동)

‘구루미’는 ‘구루+미’로 분석될 수 있다. ‘구루’는 ‘구루미’ 뿐만 아니라, ‘구루미’·‘구루미리’·‘구루미물’·‘구루미섬’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구루’에는 대부분 ‘雲’이 대응되고, 또 ‘구름’으로도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구루’는 ‘구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구름’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들 지명이 ‘높은 곳’·‘물이 많이 나는 곳’·‘땅이 걸고 바닥이 깊은 곳’·‘구름 바다처럼 넓은 곳’ 등과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다음 ‘미’는 신라어 ‘芻兮’로 소급되는 바, ‘芻兮’는 音借表記[*moih(뫼ㅎ)]로 재구될 만하다(양주동, 1954: 719, 이돈주, 1971: 360, 이철수, 1983a: 393). 그런데 신라어 ‘芻兮’는 알타이제어에서 비교 가능한 예가 있으니, 고대일본어 ‘茂梨’[*mori[山]], 만주어 [*mulu[棟·梁]], 사모예드어 [*mori[山]], 야쿠트어[*muron[山脈]], 아바르어 [*mehr[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후기중세국어에서는 대부분 ‘뫼ㅎ’로 나타난다. 즉 『龍飛御天歌』에는 ‘미’계 지명이 모두 6례가 나오는데, ‘모로’ 1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5례는 모두 ‘뫼’로만 나타나 오늘날처럼 ‘미·메’ 등은 보이지 않는다.⁹⁾ 아마도 신라어에서 [山]을 뜻하는 어휘로는 ‘芻兮’[*moih(*뫼ㅎ)]외에

[*morih(*모리ㅎ)]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moih(뫼ㅎ)]은 이후에 [moi(뫼)]·[me(메)]·[mi(미)]·[mo(모)]로 변화·분포되었고, [*morih(*모리ㅎ)]은 [*moroh(*모로ㅎ)]·[moro(모로)]·[moru(모루)]로 변화·분포되었다(이철수, 1983a: 395~396). 따라서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1례 ‘모로’는 [*morih(*모리ㅎ)]에서 변한 예요, 나머지 5례 ‘뫼’는 ‘뫼兮’[*moih(*뫼ㅎ)]에서 변한 예로 보인다.

孝靈縣本芑兮縣, 杞溪縣本芑兮縣一云化雞<三國史記 卷 34>, 뫼 爲山<訓解>, 城山 갓뫼<용 1: 52>, 椴山 뫼모로<용 4: 21>, 堂山 당뫼<용 4: 21>, 馬山 몰뫼<용 5: 42>, 鼎山 손뫼, 荒山 거츨뫼<용 7: 8>, 뫼 어둡 말라(莫尋山)<金삼 2: 23>, ㄹ롭과 뫼과논 도쿄(江山好)<杜초 8: 44>

이 ‘미’계 지명은 ‘매’·‘메’·‘모이’·‘뫼’·‘미’ 등으로 나타나는데, ‘山’으로 訓借表記되는 예가 많고, ‘味’·‘尾’로 音借表記되는 예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계 지명이 모두 신라어 ‘芑兮’에 소급하는지는 의심스럽다. [水]·[川]·[井]을 뜻하는 고구려어 ‘買’에 소급하는 어형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買’는 중국 중고음은 [mai]요, 동음은 ‘미’인데 이것은 고구려 지명 ‘內乙買一云內尔米, 買召忽縣一云彌鄒忽’<三國史記 卷 37>에서 ‘米’·‘彌’와 통용되었다. 그런데 ‘米’는 중국 중고음이 [miei], ‘彌’는 [myie]요 동음으로는 둘 다 ‘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買’는 [*mai]·[*mie]로 읽혀질 수 있을 듯하다(이기문, 1972: 33). 그리고 이들은 에벤티어 [mu[水]], 중세몽고어 [mören[江·海]], 고대일본어 [midu[水]]와 비교되며, 고구려 지명에서는 ‘水’·‘川’·‘井’과 대응되고 있다.

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 沙川縣本高句麗內乙買縣, 伊川縣本高句麗伊珍買縣<三國史記 卷 35>, 水入縣一云買伊縣, 水谷城縣一云買旦忽, 南川縣一云

9)이런 점에 근거하여 강병륜(1997: 113)은 ‘미’·‘메’형을 ‘뫼’형보다 후대 어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南買, 泉井郡一云於乙買, 買忽一云水城<三國史記 卷 37>

현용 ‘미’계 지명을 신라어 ‘芑兮’에 어원을 둔 어형과 고구려어 ‘買’에 어원을 둔 어형으로 분명히 나누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명에 ‘水’·‘川’·‘井’이 함께 사용되거나 유래담이 이들과 관련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다. 상기 예는 ‘구루미’가 ‘九雲里’로 대응되지만, 전국적인 대부분의 ‘구루미’가 ‘雲山’과 대응됨을 볼 때, [매우 높은 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직동의 구루미 마을은 자라바위 마을 남쪽에 위치하는데, 지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2.3. 넓이

마당참(안림동)

‘마당참’은 ‘마당+참’으로 분석된다. ‘참’은 지명에서 찾아 보기 힘든 후부요소인데, 안림동에는 ‘마당참’외에 ‘잔치참’이 하나 더 보인다. ‘잔치참’은 옛날 사형수들이 마즈막재를 넘어와 숲거리 사형장까지 가는 도중 쉬어 갔다는 유래담이 얽혀 있음을 볼 때, ‘站’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站’ 또는 ‘驛站’은 옛날 [공무로 여행하던 사람이 驛路를 가다가 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당참’은 마당처럼 넓어 쉬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에 형성된 마을로 이해할 수 있다.

2.2.4. 모양

1. 동물

(1)범바우(元虎岩: 호암동), (2)龍머리(龍頭: 용두동), (3)위龍머리(위龍頭·上龍頭: 용두동), (4)아래龍머리(아래龍頭·下龍頭: 용두동), (5)上龍觀(용관동), (6)龍돈(용관동), (7)자라바우(鼈岩: 직동), (8)황새머리(안립동)

(1)~(8)은 각각 범·용·자라·황새 등 동물의 전체 모양이나 일부 모양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특히 (5)는 ‘上+龍+觀’으로 분석되는데, ‘龍觀’은 ‘龍頭里’와 ‘觀山里’를 합쳐 머리글자만 따서 지은 이름이다. 따라서 上龍觀은 龍觀洞 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龍과 관련된 지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6)은 ‘龍+돈’으로 분석되는데, 여기서 ‘돈’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나 용관동에 소재하는 마을로 보아 龍과 관련된 지명임은 분명하다.

2. 사물

(1)발티(직동), (2)북바위(明堂바위: 단월동), (3)요강골(목벌동), (4)珠峰(珠峯: 교현동), (5)貫珠골(貫珠洞: 호암동), (6)작은貫珠골(호암동), (7)흙통거리(달천동), (8)中桶말(금릉동)

(1)~(8)은 바리때·북·요강·꿰어 놓은 구슬·흙통·중통 등 사물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이다. 특히 (1)은 ‘발+티’로 분석되는데, ‘발’은 ‘발고개’·‘발피(미)’·‘발봉’·‘발산’ 등과 같이 매우 생산적인 전부요소의 하나이다. ‘발’이 붙은 지명 대부분이 ‘바리’와 병용되고 있고 ‘발’ 다음에 고유어 후부요소가 잘 연결됨을 볼 때, ‘발’은 한자어 ‘鉢’이 아니라 고유어 ‘바리’가 1음절화한 어형으로 이해된다. ‘바리’는 ‘바리때’의 준말로, [나무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 중의 공양 그릇]을 뜻한다. 그렇다면 ‘발티’는 [바리때처럼 생긴 고개]로 풀이될 수 있다.

2.2.5. 위치

(1)골고개(가주동), (2)두무沼(斗潭: 용관동), (3)둔지벌(둔지洞: 용탄동), (4)牧水울(牧水: 목행동), (5)못밑(호암동), (6)밭가운데(칠금동), (7)번던(안림동), (8)벌미(용관동), (9)벌에(용탄동), (10)벌터(달천동, 용두동), (11)사래실(용탄동), (12)山골재(직동), (13)시냇골(교현동), (14)助山밖에(연수동), (15)텃골(基洞: 중민동)

(1)~(15)는 골짜기·연못·둔치·물가·못밑·밭가운데·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벌판·이랑·산골·고개·인공으로 조성된 산·터 등에 위치한 지명이다.

특히 (2)는 ‘두무+沼’로 분석된다. ‘두무’는 오늘날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주 이른 시기부터 지명에 사용되어 왔다.

耽津縣本百濟冬音縣<三國史記 卷 36>, 鐵圓郡一云毛乙冬非, 冬音忽一云鼓監城<三國史記 卷 37>, 漢拏山在州南一曰頭無岳又云圓山<世宗實錄地理志 卷 151>, 渡迷津 두미<용 3: 13>

기록 중 ‘毛乙冬非’는 ‘毛乙+冬非’로 나뉘는 바, ‘毛乙’은 [*tʰjə]로 재구되어 ‘鐵’과 대응되고, ‘冬非’는 ‘圓’과 대응된다. 또한 ‘頭無岳’은 ‘頭無+岳’으로 나뉘는데 ‘頭無’는 ‘圓’과, ‘岳’은 ‘山’과 대응된다. 따라서 ‘冬非·冬音·頭無·渡迷’ 등은 [*təm]에 대한 音借表記로 [圓]의 뜻을 알게 한다.

이런 해석을 기초로, ‘담’·‘대미’·‘더미’·‘덤’·‘데미’·‘두무’·‘두미’·‘드메’·‘듬’·‘땨’·‘땨’·‘땨’·‘땨’·‘땨’ 등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는 ‘땨’계 지명은, 그 원형이 ‘듬’이며 처음에는 자립형태소 [圓]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이돈주, 1965: 407, 조항범, 1994: 67, 강병륜, 1997: 99). 그러다가 점점 자립형태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면서 지금은 아예 지명의 후부요소로만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니, 오늘날 이 ‘땨’이 붙은 지명은 ‘里’·‘村’ 등의 한자

와 대응되면서 [마을]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또 이런 마을은 대체로 [산이나 골짜기로 둘러 싸인 작은 분지]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한 때 ‘뚝’계 지명은 충남·전남 지역에 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가 있고(이돈주, 1965, 이창섭, 1973, 신경순, 1978, 박병철, 1991, 조항범, 1994), 또 그러한 이유로 이것이 백제 어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鐵圓郡一云毛乙冬非, 冬音忽一云鼓監城’〈三國史記 卷 37〉이 고구려 지명 예이고, 충북 지역 전체를 보더라도, 오히려 청원군 이남지역보다는 청원군 이북지역-단양군·제천시·충주시·음성군·진천군·괴산군-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것이 백제어의 잔재인지는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¹⁰⁾

또한 이 ‘뚝’계 지명은 후부요소로 주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圓·四圍(四周)]이라는 기본의미를 그대로 지닌 전부요소로도 사용된다.¹¹⁾ 여기서 ‘四圍(四周)’는 [사방의 둘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두무沼’는 [사방이 산이나 골짜기로 둘러 싸인 작은 분지 안에 형성된 연못]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3)은 ‘둔지+별’로 분석된다. ‘둔지’는 지명에서 매우 생산적인 전부요소로, 둔덕진 지형에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물가의 언덕]을 뜻하는 ‘둔치’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둔지별’은 둔치 별판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다.

(4)는 ‘牧水+울’로 분석된다. ‘牧水’는 [옛날 忠州牧의 북쪽으로, 남한강가]를 뜻한다. 그리고 ‘울’은 ‘골’의 변화형이다. 지명에서, ‘골’

10)충북 지명의 경우, 총 136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 단양군(5), 제천시(18), 충주시(18), 음성군(7), 진천군(2), 괴산군(17), 청주시·청원군(42), 보은군(26), 옥천군(0), 영동군(1)이다(강병륜, 1997: 100).

11)청원군 지명에서 전부요소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담골: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마을], 두무실(斗毛):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청원군 오창면 두릉리[마을], 드무실(杜舞室):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마을], 뚝봉: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산]

계 지명은 ‘골’·‘꼴’·‘꼴’·‘골짜’·‘골짜기’·‘골명’·‘울’·‘월’·‘고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형태 중 특이한 것은 ‘울’계(또는 이것의 이형태인 ‘월’계) 지명인데, 이들은 모두 선행음이 유성음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즉, 모음으로는 ‘ㄱ[aj]·ㄱ[əj]·ㅣ[i]·ㅏ[a]·ㅓ[ə]’ 아래에서, 자음으로는 ‘ㄴ[n]·ㄹ[l]·ㅁ[m]’ 아래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유성음 아래에서만 ‘울’이 나타나는 이유를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그 가능성 중 하나로, 우리는 고구려어 ‘忽’로 소급되는 ‘골’에서 어두자음 [*k] 약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세기 직후 국어사에는 ‘l—v, z—v, j—v’ 환경에서 [g]가 [ɣ]를 거쳐 [ɦ]로 약화된 사실이 있었다. 이 음운규칙에 의해, 모음 중 ‘ㄱ[aj]·ㄱ[əj]’나 자음 중 ‘ㄹ[l]’ 아래에 나타나는 ‘울’은 ‘[gol]>[yol]>[ɦol]>[ɦul]’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모음 중 ‘ㅣ·ㅏ·ㅓ’나 자음 중 ‘ㄴ·ㅁ’ 아래에 나타나는 ‘울’은 설명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를 신라어 ‘火’·‘伐[*pör]’이나 백제어 ‘夫里[puri]’에서 어두자음 [*p]이 탈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울’계 지명을 어느 한 쪽으로만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다. 여기서는 ‘牧水울’을 [忠州牧의 북쪽인 남한강가에 위치한 마을]로 풀이한다.

(13)은 ‘시늯+골’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늯’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수늯골’을 비롯하여, ‘수노골’·‘수늯골’·‘수늯골’·‘수늯골’·‘수늯골’·‘수늯골’이란 지명이 매우 흔하다. 아마도 이들은 ‘고개[嶺]’를 뜻하는 ‘수늯’의 변형이 아닌가 추정한다. 그렇다면 ‘시늯골’은 [고개가 있는 골짜기]로 풀이될 수 있고, 이런 곳에 위치한 마을에 붙인 지명으로 이해된다.

2.2.6. 특성

1. 사람

(1)곤평(달천동), (2)難民村(瑞興: 목행동), (3)嶺南村(용산동), (4)도둑골
(지현동·호암동), (4)방자고개(연수동), (6)잔치참(안림동)

(1)은 ‘곤+평’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곤’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나, 이곳은 임진왜란 때 오랑캐들이 날뛰던 들이라는 유래담으로 보아 ‘軍’의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평’은 [들]을 뜻하는 ‘坪’으로 보아, ‘곤평’은 ‘軍坪’, 즉 [군이 주둔했던 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2)~(3)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마을이다. (2)는 6·25 때 피난민들이, (3)은 1899년 흥년 때 영남 사람들이 들어와 토막을 짓고 살던 곳이다.

(4)는 과거 도둑들이 웅거했던 곳이고, (5)는 옛날 원님이 방자를 데리고 넘다가 범이 방자를 물어간 고개라는 유래담이 얽혀 있다.

(6)은 ‘잔치+站’으로 분석된다. 이곳은 옛날 사형수들이 마즈막재를 넘어와 숲거리 사형장까지 가는 도중 쉬어 가던 곳이다. 따라서 ‘잔치참’은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쉬어 가던 장소에 형성된 마을]로 이해할 수 있다.

2. 동물

(1)뜸북골(호암동), (2)鳴鶴골(호암동), (3)범洞(봉골: 종민동), (4)鳳溪(봉방동), (5)여수월(여우골: 교현동), (6)龍골(龍谷·龍洞: 용탄동), (7)진의실(진의골: 목벌동), (8)황새모랭이(교현동)

(1)~(8)은 뜸북이·학·범·봉·여우·용·지네·황새 등 동물들이 깃들여 살았던 특성과 관련된 지명이다.

특히 (6)은 ‘龍+골’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용골’은 대단히 흔한데, 그 대부분은 ‘龍’과 관련되어 있다. ‘용이 승천한 골짜기’·‘용처럼 생긴 골짜기’·‘용샘이 있는 골짜기’·‘용뿔이 있는 골짜기’

등이 그것이다. 본 지명도 용과 관련되어 있음은 확실한데, 이 중 어떤 유래담과 관련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7)은 ‘진의+실’로 분석된다. ‘진의’는 ‘지네’의 중세국어형이니, ‘진의실’은 과거 지네가 많이 살았던 데서 붙은 이름이다.

3. 식물

(1)果樹고개(단월동), (2)丹楓골(풍동), (3)上楓(풍동), (4)中楓(풍동), (5)下楓(풍동), (6)배나무실(연수동), (7)松亭(단월동), (8)참나무亭(용탄동), (9)銀杏亭이(杏亭: 목행동), (10)웃갯(漆枝: 칠금동), (11)훼나무거리(성서동), (12)松林(달천동), (13)숲거리(문화동·봉방동), (14)御林(안림동), (15)숲풀말(호암동)

(1)~(15)는 과일나무·단풍나무·배나무·소나무·참나무·은행나무·웃나무·훼나무·소나무숲·기타 숲 등 식물의 서식이라는 특성과 관련된 지명이다.

특히 (2)는 단풍나무가 많았던 마을로, (3)~(5)는 여기서 갈라진 마을이다.

(7)~(8)은 각각 ‘松+亭’, ‘참나무+亭’으로 분석된다. ‘亭’은 [亭子]를 뜻하는데, 나무가 오래 묵어 정자 역할을 할 때 많이 붙는다. 이 ‘亭’에 접미사 ‘-이’가 붙으면 ‘亭이’가 되는데, (9)가 그 예에 해당된다.

(10)은 ‘웃+갯’으로 분석된다. ‘갯’은 [枝]를 뜻하는 중세국어 ‘갓’의 변형이다. [枝]를 뜻하는 중세국어형에는 ‘갓’·‘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가지’가 그대로 현대어에 이어지고 있다.

즐갯 가재 연즈니 <용 7>, 가지 퍼디어 <석 6: 30>

無憂樹스 가지 곱거늘 <曲 19>

(12)는 백제 문주왕이 假行宮을 지었던 솔밭이라는 유래담을 가지고 있다.

4. 사물

(1)인공물

(1)곳집거리(연수동), (2)光부처거리(용산동), (3)琴臺(칠금동), (4)金堤(금릉동), (5)쇠지울(금릉동), (6)金고리(金谷: 연수동), (7)나무塵거리(충인동), (8)陵골(陵谷: 풍동), (9)陵바우(陵岩: 금릉동), (10)大堤(水淸골: 호암동), (11)東幕골(풍동), (12)下東幕(풍동), (13)東門거리(東部: 성내동), (14)西門거리(西部: 성서동), (15)南門거리(남부: 성남동), (16)北門거리(北部: 교현동), (17)夜門거리(교현동), (18)城안(城內: 성내동), (19)古北門거리(교현동), (20)웃南部(용산동), (21)東守(東守마루: 연수동), (22)말무덤자리(용산동), (23)못둑거리(용두동), (24)彌勒이(목행동), (25)方井골(方井洞: 봉방동), (26)웃方井골(上方: 봉방동), (27)아랫方井골(下方: 봉방동), (28)烽火골(호암동), (29)氷峴(지현동), (30)社稷山(문화동), (31)西湖亭(용관동), (32)城터지기(문화동), (33)세집담(단월동·연수동), (34)송장골(문화동), (35)神담벌(용탄동), (36)藥幕(안림동), (37)연못등치(문화동), (38)甕器店(용탄동), (39)웃서낭댕이(호암동), (40)院터(院垔: 목벌동·중민동), (41)장들말랭이(연수동), (42)절골(寺谷: 용탄동), (43)아랫절골(용탄동), (44)종댕이(宗堂: 중민동), (45)웃종댕이(上宗: 중민동), (46)아랫종댕이(下宗: 중민동), (47)酒幕거리(안림동), (48)柳酒幕(단월동), (49)塔垔(직동), (50)풀무고개(冶峴洞: 교현동), (51)鄉校말(校洞: 교현동), (52)확골(白洞: 용탄동)

(1)~(52)는 마을에 인공물이 있다는 특성과 관련된다. 특히 (1)은 ‘곳집+거리’로 분석되는데, ‘곳집’은 [庫집]·[상엿집]을 뜻한다.

(2)는 ‘光부처+거리’로 분석된다. 현재 충주공고 동북방 노천에 鐵佛 아미타불[光佛]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光佛은

현재 大圓寺 내에 봉안하고 있다.

(3)은 ‘琴+臺’로 분석된다. ‘琴’은 [거문고]를, ‘대(臺)’는 [평탄하면서 주위보다 한 단 높은 지형]을 말한다. 彈琴臺가 있어 붙은 지명이다.

(4)~(6)은 예로부터 쇠가 많이 나는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특히 (6)은 ‘金+고리’로 분석되는데, ‘고리’는 ‘골’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

(10)은 마을 양편으로 맑은 물이 흘러 大堤池로 들어가기에 붙은 지명이고, (11)~(12)는 동쪽이 막힌 것을 인공물 幕에 기대어 붙인 이름이다.

(13)~(18)은 옛 충주읍성을 중심으로 각각 동·서·남·북문·야문·안에 기대어 붙인 지명이다. 특히 夜門은 [야간에 4대문이 닫히고 난 뒤 관원들이 드나들던 비상문]을 뜻한다.

(19)는 충주읍성의 북문이 아니라, 삼한 때 안림동 御林에 왕도를 정했을 당시 逢峴城의 북문이 있던 곳이기때 붙은 지명이다.

(21)은 옛날 連原驛의 찰방이 있던 곳으로, 동편을 지키는 망대가 있어 붙은 지명이다.

(24)는 彌勒佛이 있어 붙은 지명이고, (25)~(27)은 옛날 들 가운데 네모진 샘이 있어 붙은 지명이다.

(29)는 박샘이 있는 마을로, 이 샘은 넘쳐 흘러 겨울이면 빙판을 이루었기에 이 일대를 氷峴으로 불렀다.

(31)은 ‘西湖亭’이란 정자가 있었기에 마을 이름도 ‘西湖亭’이 된 것이고, (32)는 옛날 城이 있었던 곳이기때 붙은 지명이다.

(33)은 ‘세+집+담’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담’은 생산적인 후부요소 ‘뚝’의 이형태로, [한 동네 안에서 따로따로 몇 집씩 모여 있는 구역]을 뜻한다.

(34)는 ‘송장+골’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송장’이 전부요소로 붙은 지명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죽은 사람의 몸뚱이]를 뜻하는 ‘송장’과 관련된 유래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 ‘송장골’ 중에는 ‘松亭골’에서 변한 말로 보고, [소나무가 많았던 골짜기]로 풀이하는 예도 있다. 본 지명 ‘송장골’은 송장과 관련된 것인지 松亭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글자 그대로 전자로 보고 [송장을 묻은 무덤이 많았던 곳]으로 풀이하여 인공물로 분류한다.

(35)는 강변에 있는 돌담이 있는 벌을 뜻하는 지명으로, 이 돌담에서 매년 동제를 올려 왔기에 이 돌담은 ‘神담’으로 불린다.

(36)은 옛날 약초밭 농막에 붙었던 이름인데,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자 그대로 마을 이름으로 사용된 예이다.

(41)은 ‘장들+말랭이’로 분석된다. ‘장들’은 [장치기를 하던 들]이고, ‘말랭이’는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말한다. 따라서 ‘장들말랭이’는 [장치기를 하던 나지막한 산으로 된 들]로 해석된다.

(44)는 ‘종댕+이’로 분석된다. ‘종댕’은 ‘宗堂’이 접미사 ‘-이’에 의해 음라우트된 어형이다. 이곳은 旌善 全氏의 세거지로, 이들의 사당이 있어 ‘宗堂’으로 불린 것이다. (45)~(46)은 종댕이가 나뉘어 형성된 마을이다.

(48)은 상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과거 주막이 발달했던 곳이다. 조선 宣祖의 사돈 月逢公 柳永吉이 이류면 팔봉으로 낙향하자 그의 동생 영의정 柳永慶이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柳氏로 인해 생긴 주막이라 하여 柳酒幕으로 불렸다.

(2)자연물

(1)곱도실(목벌동), (2)나무벌(남벌·木벌: 목벌동), (3)모새내(沙川: 단월동), (4)沙덕이(안림동), (5)섬들(칠금동), (6)섬말(島村: 교현동, 봉방동·안림동)

(1)~(6)은 곱돌·나무·모래·섬 등 자연물을 지닌 특성과 관련

된 지명이다.

특히 (1)은 ‘곱돌+실’로 분석된다. ‘곱돌’은 ‘蠟石’이라고도 하는데, 기름 같은 광택이 있고 만지면 매끈매끈한 암석 및 광물의 총칭이다. ‘곱돌’의 ‘ㄱ’이 ‘실’의 ‘ㅅ’ 앞에서 탈락된 어형이다. 국어사에 있어 15세기 직전에 ‘r > Ø / — z, s, n, t, c’의 음운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 마을은 곱돌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4)는 계명산 줄기의 도랑가에 있는 마을로, 모래 언덕이 있어 붙은 지명이고, (5)~(6)은 섬으로 된 들과 마을이기에 붙은 지명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충주시의 시내에 소재하는 189개의 자연부락명을 대상으로, 그 명명 유연성을 고찰해 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명명 유연성을 내부준거와 외부준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내부준거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자체 내의 내적 상황이나 조건이 명명기반이 된 경우이고, 외부준거란 그 땅의 외적 상황이나 조건이 명명기반이 된 경우이다.

둘째, 명명의 내부준거로는 길이·높이·모양·성질·수·위치·크기가 관련된다. 이들은 모두 62개(32.8%)로, 위치와 관련된 지명(27개·14.3%)이 최다수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준거에 비해 수적으로 적다. 이들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길이(2개·1.1%)·높이(6개·3.2%)·모양(7개·3.7%)·성질(14개·7.4%)·수(2개·1.1%)·위치(27개·14.3%)·크기(4개·2.1%)

셋째, 명명의 외부준거로는 기능·높이·넓이·모양(동물·사

물)·위치·특성(사람·동물·식물·사물) 등이 관련된다. 이들은 모두 127개(67.2%)로, 특성과 관련된 지명(93개·49.2%)이 최다수이다. 이들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능(1개·0.5%), 높이(1개·0.5%), 넓이(1개·0.5%), 모양(동물: 8개·4.2%, 사물: 8개·4.2%)·위치(15개·7.9%), 특성(사람: 7개·3.7%, 동물: 8개·4.2%, 식물: 16개·8.5%, 사물: 62개·32.8%)

넷째, 자연부락명의 명명의 유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명의 어원 풀이가 정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마을 형성의 역사나 유래담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 참고문헌 □

- 강병륜(1997), 『고유지명어 연구』, 박이정.
- 강현규(1994), “지명의 후행소 ‘-치(-티/치)’에 대하여”, 『웅진어문학 2』, 웅진어문학회.
- 건설부국립지리원(1987), 『지명유래집』, 거성문화인쇄사.
- 고정의(1995), “울산 지역 지명의 후부 요소”, 『울산어문논집 10』,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 국사편찬위원회(1973), 『여지도서 상』, 탐구당(영인본).
- 권순기(1994), “지명 부여의 과정과 방향”, 『새국어생활 4-1』, 국립국어연구원.
- 김윤학(1983), “생성과정에서 본 땅이름 연구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기산리·대안리·덕목리·신왕리-”, 『문호 8』, 건국대.
- (1985),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중북부 땅이름 연구 -땅이름 생성을 중심으로-”, 『건국어문학 9·10 합집』, 건국대.
- 김주원(1981),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1982), “백제지명어 ‘근·只’에 대하여”, 『민족문화논총 2·3』, 영

- 남대.
- 김준영(1973), “한국 소지명 후부어에 대한 어의상 고찰”, 『한국언어문학 10』, 한국언어문학회.
- (1977), “한국 소지명의 어의에 관한 고찰”, 『야천 김교선 선생 정년퇴임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1985), “전북 소지명의 어원고”, 『전라문화논총 창간호』, 전라문화연구소.
- 김진식(1987), “제천방언의 자음변동”, 『어문연구 16』, 어문연구회.
- (1990), “청원지명의 음운론”, 『개신어문연구 7』, 개신어문연구회.
- (1997a), “‘까치내’의 어원 고찰”, 『어문연구 29』, 어문연구회.
- (1997b), “‘무심천’의 어원 고찰”,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 (1997c), “청원군 지명 연구 -전부요소의 고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1』, 중원언어학회.
- (1998), “청원군 지명의 명명 유연성”, 『개신어문연구 15』, 개신어문학회.
- (2000a), “청원군 지명의 의미론적 연구 -후부요소를 중심으로-”, 『언어학 4』, 중원언어학회.
- (2000b), “청원군 소재 산명의 후부요소 연구”, 『어문연구 34』, 어문연구학회.
- (2001), “자연부락명의 명명 유연성 연구 -청원군 북이면을 중심으로-”, 『언어학 5』, 중원언어학회.
- 김형규(1949), “삼국사기 지명고”, 『진단학보 16』, 진단학회.
- 김형주(1981), “지명 형성에 나타난 형태소의 유형고 -남해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4』, 동아대.
- 김홍식(1978), “제주도 지방의 지명에 대하여 -특히 지명 접미사를 중심으로-”, 『논문집 10』, 제주대.
- 도수희(1985), “백제어 ‘村’에 대하여”, 『유창균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1987), 『백제어 연구(Ⅰ)』,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1989), 『백제어 연구(Ⅱ)』,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1994a), “지명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4-1』, 국립국어연구원.

- (1994b), 『백제어 연구(Ⅲ)』,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박병채(1968), “고대삼국의 지명 어휘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복수지명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5』, 백산학회.
- 박병철(1991), “‘谷’계 지명에 대한 일 고찰 -단양지역 지명을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의 샘터 -연산 도수희 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박은용(1968), “지명표기에 의한 舌·花의 고형 추정”, 『이상헌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박태권(1973), “김해방언의 형태 -지명의 조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지방 종합학술조사보고서』, 부산대 한일문화연구소.
- 배대운(1979), “자연부락명의 명명 유연성에 관한 연구 -상주군을 중심으로-”, 『논문집 9』, 상지실업전문대.
- 백두현(1988), “영남 동부지역의 속지명고 -향가의 해독과 관련하여-”, 『어문학 49』, 한국어문학회.
- 북이면지편찬위원회(2002), 『북이면지』, 뒷목출판사.
- 송하진(1993),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의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 신경순(1971), “고유지명의 조사연구 -청원군 가덕면-”, 『수곡 2』, 청주교대.
- (1973), “소지명어의 유형 분류와 고유지명 대 한자지명의 대응관계 연구 -충북 일원을 대상으로-”, 『논문집 9』, 청주교대.
- (1975), “소지명어의 명명 유연성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제천군 지명을 대상으로-”, 『논문집 12』, 청주교대.
- 신경철(1991), “원주지역 지명의 후부어의 어의에 대하여”, 『원주월 3』, 원주문화원.
- 신태현(1958), “삼국사기 지리지의 연구”, 『논문집 1』, 경희대.
- 심여택(1972), “제주도 지명 연구 -그 특성을 중심으로-”, 『논문집 4』, 제주대.
- (1975), “제주도 지명의 구성 -중문면의 지명을 중심으로-”, 『국문학보 7』,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 예성문화연구회(1997), 『충주의 지명』, 털보인쇄광고.
- 유재영(1971), “전북지방 전래지명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어문학계 4)』, 문교부.

- (1982), 『전래지명의 연구』, 원광대출판국.
- 유창균(1969), “한국고대한자음연구”, 『동양문화 9』, 대구대.
- 유창돈(1979),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윤평원(1985), “지명어의 형태 고찰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새결 박태권 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돈주(1965), “전남지방의 지명에 관한 고찰 -특히 지명 suffix의 분포를 중심으로 한 시고-”, 『국어국문학 29』, 국어국문학회.
- (1966), “완도지방의 지명고”, 『호남문화연구 4』,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 (1971), “지명어의 소재와 그 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지명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한글학회.
- 이병선(1982), “一云·或云·一作의 표기에 대하여”, 『어문연구 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승녕(1971), “백제어 연구와 자료면의 문제점 -특히 지명의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연구 2』, 충남대 백제연구소.
- 이용주(1976), “한국지명의 의미론적 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산명의 기반을 중심으로-”, 『사대논총 14』, 서울대.
- (1977), “충청북도 소재 하천명에 대하여”, 『국어교육 3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창섭(1973), “공주군 자연부락 지명고 -어 구조를 중심으로-”, 『논문집 10』, 공주교대.
- 이철수(1982), “지명언어학 연구서설(Ⅰ) -지명언어학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5(통권 1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1983a), “한일지명어의 비교 연구(Ⅰ) -한어 어원별 지명형태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44·4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1983b), “지명언어학 연구 서설(Ⅱ) -지명어원론을 중심으로-”, 『논문집 9』,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형석(1992), “김포군의 ‘곶’ 땅이름 연구”, 『기전문화 10』, 기전향토문화연구회.
- 임소영(1997), 『한국어 식물이름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영희(1978), “한국지명의 의미론적 유연성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 전철웅(1997), “청주시 지명 연구 -명명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오당 조항근 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정 철(1973a), “자연부락명의 형성”, 『어문논총 8』, 경북대.
- 조규태(1985), “옛 땅이름에 쓰인 ‘忽·己’에 대하여”, 『배달말 10』, 배달말학회.
- 조항범(1994), “부여지방의 지명”, 『새국어생활 4-1』, 국립국어연구원.
 ——(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청원문화원(1997), 『청원군 지명지』, 일광.
- 청주시(1977), 『청주시지 상』, 미진문화사.
- 청주시·충북대인문학연구소(1999), 『청주 지명 유래』, 태학사.
- 超智唯七(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 名稱一覽』, 兵林館印刷所(東京).
- 최범훈(1969), “한국지명학 연구 서설”, 『국어국문학 42·43』, 국어국문학회.
 ——(1973), “고유어 지명 연구 -지명 접미사의 유형별 고찰-”, 『노산 이은상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75), “고유어 지명접미사 연구 -경기도 포천군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22·23』, 한국국어교육학회.
- 충청북도(1987), 『지명지』, 고려서적주식회사.
- 한글학회(1970), 『한국지명총람 3(충북편)』, 선일인쇄사.
 —— (1991), 『한국땅이름사전(상·중·하)』, 한글학회.